



전북선관위, 장애인·다문화가족 선거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 및 투표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선관위가 새내기·다문화·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도내 다문화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절차가 복잡한 만큼, 유권자가 투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 투표 체험과 선거상식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수업을 병행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연수 외에도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다양한 유권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거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건협 전북지부, 이팝나무 철길서 건강검진 독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봄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4월 30일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일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팝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왔던 건강관리를 다시 돌아보고, 적기에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들은 철길 곳곳에서 검진 안내 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국가건강검진 절차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 '장려상'

순창 성유미 교육사, '하얀 밥 어디서 왔니?' 작사 작곡

순창군 금과들소리전수관에서 근무 중인 문화예술교육사 성유미 씨가 국립국악원이 주최한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제40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시상식에서 '하얀 밥 어디서 왔니?'를 작사·작곡해 국립국악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작 '하얀 밥 어디서 왔니?'는 모내기 과정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고, 농사일 속에서 전해 내려온 들소리를 현대적인 선율로 표현해 밥 한 그릇에 담긴 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씨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에서 거문고를 전공했으며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문화경영관광 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전수관 근무 이전에는 순창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강사로 활동했으며, 2024년 제35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작 음원은 '국악동요 선집 제37집'으로 제작돼 음



원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으며 국립국악원 국악자료관에서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수상작은 창작자가 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유미 교육사는 "금과들소리 전승 과정에 함께하며 우리 농요가 지닌 생명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순창의 소중한 전통 농경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군과 금과들소리 보존회원들의 격려 덕분에 자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5개 작품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으며 전통 음악의 요소와 창의적인 노랫말을 잘 살린 12곡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정민 씨의 '밭도 산을 여행'이 차지했고, 우수상은 양지혜 씨의 '호이호이 순비소리', 감수아 씨의 '하나 둘 셋, 김치가 각각 섰다'다. 장려상에는 성 씨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9곡이 이름을 올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술한의원·카페리츠, 통합돌봄 대상자에 커피 기부

군산시 소재 (재)대한환경보건의술한의원(원장 강성웅)과 카페리츠(대표 강인규)는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 및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드립백 커피(1천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드립백 커피는 각 대상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며, 물품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술한의원은 군산시의 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제96회 춘향제, 로봇·드론 활용... 그물망 순찰 펼쳐다

도민 체험형 자치경찰 구현... 방문객 '호응'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남원 관향루원과 요천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96회 남원 춘향제' 현장에서 자율순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자치경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공모사업인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R&D)'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IT) 전북지역본부가 참여해 실증 중인 자율순찰 로봇이 현장에 투입됐다. 현장에서는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 치안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자율순찰 로봇은 관향루원 일대를 순찰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전북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의 드론은 미야·실종 방지와 치안 사각지대 점검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방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홍보 부스에서는 자율순찰 로봇 전시와 함께 어



린이 경찰복, 사포모자 등을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친근한 자치경찰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과 협력해 고령운전자 인지기각 체험서비스를 운영하고, 남원경찰서와 함께 아동 및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밀착형 치안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을 구현하는 한편, 축제 기간 동안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체류형 관광 '시티스테이 올레' 성료

정읍시와 시 지역활력센터는 타지역 가족 단위 관광객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무성서원과 내장산, 원도심 일대를 탐방하는 1박 2일 체류형 관광 '정읍 시티스테이 올레'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정신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 진행했다. 주민들이 직접 기관, 박물관, 기억저장소, 떡마을, 림플래프 등 도시재생 거점을 주로 활용했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마을의 일상과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다. 시는 지난 3월 진행된 '슬로 슬로우 투어'에 이어 올레 총 4회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정천면, 방치된 영농폐자재 30여 톤 수거

영지남 5월 4일 진안군 정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정재민)는 깨끗하고 쾌적한 정천만들기 일환으로 농경지 및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영농폐자재 30여 톤을 수거했다. 영농폐자재 마을 순회 일괄 수거에 앞서 정천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월 이장회의 시 행정복지센터 주관 방치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계획을 전달하고 15개 마을로부터 곳곳에 산재한 방치 영농폐자재 현황을 접수 받은 후 현장조사하여 집중 수거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작업은 영농폐자재를 매립장까지 직접 운반하기 어려운 고령 농가들의 영농폐자재를 대신 수거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6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신진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6645-9935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극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극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